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pril 2025 Issue | Vol. 24

SPECIAL POINTS OF INTEREST

- 관세 전쟁 속 무역 경로 변화에도 필리핀은 수혜 어려울 듯
— page 1-2
- 필리핀, 1분기 견조한 8% 성장률 기록한 것으로 전망 — page 2-3
- 3월 BOP, 2월 30억 달러 흑자에서 18억 7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
— page 3-4
- 세계 경기 침체 위험 속에서도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
— page 4-5
- 관세 유예, 제조업체 이전 유치의 기회로 보여
— page 6

UPCOMING EVENT

- [May 14, 2025] 2025 JFC 클락 국제 박람회 — page 7

관세 전쟁 속 무역 경로 변화에도 필리핀은 수혜 어려울 듯

April 21, 2025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는 보복 관세로 인한 무역 경로의 변화가 동남아시아 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필리핀은 열악한 물류 부문으로 인해 반드시 그 혜택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 브리핑에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관세가 높은 항구를 피하려는 우회 무역 흐름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는 지역 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관세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7%보다도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역 물류 부문이 덜 발달한 필리핀은 경로 재조정으로부터 큰 수혜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4월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 대해 상호주의적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필리핀은 17%의 관세를 적용받아 싱가포르에 이어 지역 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부터 90일간 상호주의 관세를 유예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했다. 이 유예 조치는 7월에 해제될 예정이다.



A US FLAG and a “tariffs” label are seen in this illustration taken on April 10, 2025. —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내에서 ‘해운 경로의 재편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는 유예되었지만, 향후 시행될 경우 ASEAN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극도의 불확실성, 높은 고정자산 투자 비용, 그리고 이 지역의 강력한 노동비용 경쟁력을 고려할 때, ASEAN 공급망이 빠르게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부 기업들은 관세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다변화된 생산 거점을 보유한 것은 아니며, 이전 비용 또한 막대하다. 또한 극단적인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관세 인상이 철회되거나 완화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적(transshipment) 능력을 갖춘 저관세 국가들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주요 리스크는 공급망의 혼란 가능성이다. 주문 취소로 인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고, 물류 운송 능력에도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지역에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이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미국에 대한 ‘중간 수준의 노출’을 가진 국가로 분류됐다.

또한, “필리핀은 국내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체 수출 중 약 20%가 미국으로 향하는 외부 충격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미국은 필리핀 수출의 가장 큰 목적지였으며,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했다.

“관세율 차이는 생산지 결정에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여러 국가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낮은 관세 국가의 기존 가용 생산 능력을 활용해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nt. page 2]

관세 전쟁 속 무역 경로 변화에도 필리핀은 수혜 어려울 듯

[Cont. from page 1]

그러나 이 글로벌 경제 자문 기관은 모든 기업이 다변화된 생산 거점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저관세 국가로 이전하거나 신규 시설을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고정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복잡한 설비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 지역이 이러한 상품 생산에서 보유한 비교우위는 관세가 인상되더라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제품 조립이나 섬유 절단 및 마감 공정과 같은 낮은 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제조 공정에서 ASEAN 국가들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정이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ASEAN 국가 간 임금 격차는 이 지역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다.

중기적으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ASEAN 내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회귀(reshoring)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노동 비용은 ASEAN에서 주로 수행되는 노동집약적 공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이 지역은 기존의 생산 허브로서 규모의 경제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ASEAN 국가들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산 제품에 대한 ASEAN의 실질 관세율이 이미 미국이 ASEAN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호주의 관세를 얼마나 더 낮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ASEAN 국가들이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재임 당시 중국이 선택한 전략이었지만, ASEAN이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ASEAN의 소비 시장은 소득 수준 차이로 인해 미국보다 훨씬 작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이 지역 국가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선택한 전략이지만, ASEAN에서는 대부분의 생산업체가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4/21/666662/phl-unlikely-to-benefit-from-shifting-trade-routes-amid-tariff-war/>

필리핀, 1분기 견조한 6%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

견고한 확장, 주식 상승 및 채권 수익률 하락 기대

April 22, 2025 | Ian Nicolas P. Cigaral | Philippine Daily Inquirer



Despite headwinds, the Philippine economy was expected to have grown by 6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Photo by Ted ALJIBE / AFP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경제는 첫 분기 동안 6%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식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중앙은행이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UA&P(아시아태평양대학교)의 경제학자들은 월간 보고서인 'The Market Call'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조치가 '불확실성'을 초래했으며, 이는 필리핀 경제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A&P는 첫 분기 GDP 전망을 0.2%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6%로 수정했으며, 이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관세로 인한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Cont. page 3]

필리핀, 1분기 견조한 6% 성장률 기록한 것으로 전망

견고한 확장, 주식 상승 및 채권 수익률 하락 기대

현재 진행 중인 금리 인하 사이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걸쳐 대규모 관세를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보였던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필리핀 제품에 대해 17%의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금리 추가 인하

UA&P의 경제학자들은 BSP가 6월에 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결정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소는 5월까지 약간의 가치 상승 편향을 유지하겠지만, BSP의 금리 인하 조치와 달러 보유고를 재건하려는 노력은 6월에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코컬 10년 만기 실제 수익률이 4.53%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필리핀 채권은 저평가된 상태로, 시장이 BSP의 6월 회의에서 또 다른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하락세를 되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10일 회의에서,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을 0.25%포인트 인하하여 5.5%로 조정하며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했다.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이 결정은 온건한 물가 상승률 속에서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이었다. 엘리 레몰로나 주지사는 “추가 금리 인하”와 올해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를 암시했다.

‘안전 자산’ 시장

스위스 은행 거물인 UBS의 분석가들은 올해 BSP가 금리를 세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이는 관세 폭격과 그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에서 비교적 안전한 필리핀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시장은 진행 중인 무역 전쟁과 세계 경제 침체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실제로 UA&P는 첫 분기 GDP 성장률이 6%에 이를 경우, 이는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좋은 기업 실적과 중간 선거 결과가 ‘중립적에서 긍정적’일 경우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이 미국 금융 시장에 큰 변동성을 일으켰고, 이는 필리핀 주식 시장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20916/ph-seen-to-have-posted-solid-6-growth-in-q1](https://business.inquirer.net/520916/ph-seen-to-have-posted-solid-6-growth-in-q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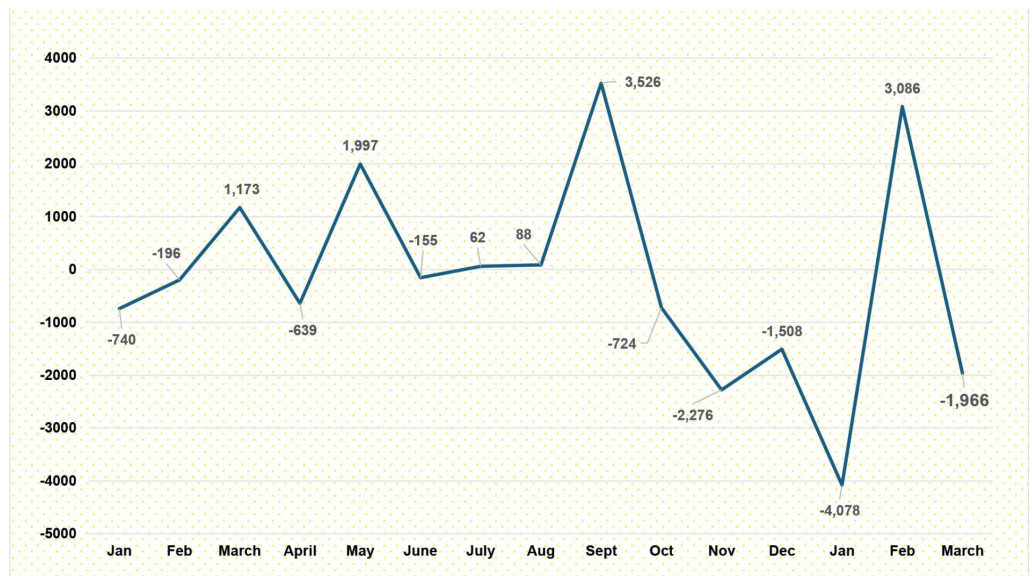
3월 BOP, 2월 30억 달러 흑자에서 19억 7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

April 22, 2025 | Jimmy Calapati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필리핀의 국제 수지(BOP)가 2월 30억 9천만 달러의 흑자에서 3월 19억 6천 6백만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4월 21일 발표된 성명에서 중앙은행은 적자가 국가의 외환 준비금(GIR) 내에서 정부의 외화 예치금 감소로 발생했으며, 이는 외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SP는 또한 외환 시장에서의 운영을 위해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야 했다.
[Cont. page 4]



3월 BOP, 2월 30억 달러 흑자에서 19억 7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

[Cont. from page 3]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적자는 주로 필리핀의 상품 무역 적자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감소는 개인 송금, 외국인 직접 투자 및 국가 정부의 외채에서의 순유입이 계속되면서 다소 완화되었다”고 BSP는 밝혔다.

3월 적자는 또한 2024년 3월에 기록된 11억 7천만 달러의 흑자와 대조적이었다. 이로 인해 3개월 누적 적자는 29억 6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24년 1월에서 3월 동안의 2억 3천 8백만 달러 흑자에서 반전된 것이다.

국제 수지(BOP)는 특정 기간 동안 필리핀의 경제 거래 내역을 요약한 것이다.

저조한 외환 보유고

중앙은행은 3월의 지급수지 적자가 지난 2월 말 기준 1,074억 달러에서 1,067억 달러로 줄어든 최종 외환 준비금(GIR)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외환 준비금 수준은 약 7.4개월 분의 상품 수입 및 서비스와 기본 소득 지출에 해당하는 강력한 외환 유동성 버퍼를 제공하며, 이는 또한 잉여 만기 기준으로 국가의 단기 외채 약 3.6배를 커버한다고 덧붙였다.

외환 준비금(GIR)은 필리핀의 해외 투자, 금 및 외환 보유고, 그리고 IMF에서의 국가 준비 위치와 특별 인출 권리(SDR)를 포함한다.

수입 둔화

필리핀 개발연구소(PIDS) 수석 연구원인 존 파올로 리베라는 적자를 유발한 다른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며, 대출, 송금 또는 투자 관련 수입 등의 이전 유입이 3월에 둔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적자는 국가의 외환 상황이 글로벌 시장의 변동과 국내 자금 조달 필요성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강조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앞으로 외채 관리와 무역 경쟁력의 신중한 관리가 외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리베라는 말했다.

기여 요인들

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는 3월 국제수지(BOP) 적자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를 꼽았습니다.

그는 “최신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액(GIR) 자료는 해외 필리핀 근로자(OFW) 송금, BPO 수익, 수출, 외국인 투자, 외국인 관광 수입 등 국가의 구조적인 미달러 유입이 계속 증가한 데 힘입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몇 달간 OFW 송금, BPO 수익, 수출 수익 및 외국인 관광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국제수지 자료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이러한 흐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march-bop-swings-to-1-97b-deficit-from-feb-3b-surplus/](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march-bop-swings-to-1-97b-deficit-from-feb-3b-surplus/)

세계 경기 침체 위험 속에서도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

April 22, 2025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이 고조되고 무역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필리핀 경제는 여전히 역내에서 가장 회복력이 강한 경제 중 하나라고 여러 은행들이 평가했습니다.

필리핀 은행(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BPI)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호세 테오도로 림카오코(Jose Teodoro Limcaoco)는 필리핀이 견조한 국내 소비와 통제 가능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 덕분에 글로벌 경기 침체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잘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5]

세계 경기 침체 위험 속에서도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

[Cont. from page 4]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president and CEO Jose Teodoro Limcaoco said the country remains relatively insulated from global recession risks due to its strong domestic consumption and controlled inflation.

Jun Acculador / CC BY-ND

림카오코는 “글로벌 불확실성, 특히 경기 침체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필리핀은 여러 주변국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은 비교적 유리한 대외 노출도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관세 정책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본질적으로 서비스 중심이며 소비 주도형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 제한 조치의 부정적인 영향을 견디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림카오코는 말했습니다.

기관투자자 부문은 글로벌 무역 긴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림카오코는 은행의 비기관 포트폴리오는 올해 내내 회복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식료품 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물가 상승률이 잘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은행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최신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글로벌 무역 혼란에 대한 노출이 미미하고 통화 정책 완화 가능성이 높으며 필리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UBS의 동남아 및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이스 림(Grace Lim)은 “필리핀의 무역 및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노출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우리의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필리핀 시장은 지속되는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낙관론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부분의 교역국에 대해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전방위적 무역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필리핀은 상호 관세 대상국 29개국 중 하나로, 17%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UBS 경제학자들은 이번 무역 긴장으로 인해 전 세계 성장률이 50100bp(베이스스포인트), 아시아는 30120b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필리핀은 가장 영향이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약 30bp의 하방 압력만 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경제가 내수 중심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대미 수출은 GDP의 약 2%에 불과해, 지역 내에서 미국에 대한 노출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UBS는 필리핀의 전체 무역 대비 GDP 비율이 약 66%에 달한다며, 광범위한 글로벌 경기 둔화 시에는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과 추가 금리 인하도 경제를 뒷받침할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UBS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올해 8월, 10월, 12월에 각각 한 차례씩 총 세 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와도 유사한 흐름입니다.

물가상승률은 2.4%로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한 충분한 여지를 제공합니다.

한편, 무디스(Moody's)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디렉터인 준 홍 추아(Choon Hong Chua)는 아시아 지역이 무역 장벽 증가로 인한 충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수출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용 상승과 불확실성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관세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경우 미국 내 수요 감소, 경쟁력 상실, 시장 점유율 축소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추아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그는 공급망의 가시성과 민첩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기업이 불확실한 시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4/22/2437348/amid-global-recession-risks-philippines-a-relatively-safe-haven>

관세 유예, 제조업체 이전 유치의 기회로 보여

April 21,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은 90일간의 세금 유예 기간을 활용하여 고율 세금이 부과된 중국에서 이전하는 제조업체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한 산업계 인사가 말했다.

콘셉시온 인터스트리얼 코프의 회장이자 사장인 라울 조세프 A. 콘셉시온은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전략적인 기회로 부르며,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세금 차이로 인해 중국을 떠나고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One News의 "Money Talks with Cathy Yang"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결과로 필리핀에 제조업체들을 유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라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필리핀으로 오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작은 시간 틈새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AUL JOSEPH A. CONCEPCION
—
FACEBOOK.COM/
RAULJOSEPHCONCEPCION

필리핀은 싱가포르의 기준 세율 10%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에서 두 번째로 낮은 17%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ASEAN 회원국들은 일부 높은 세율에 직면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49%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라오스(48%), 베트남(46%), 미얀마(44%), 태국(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4%), 브루나이(24%)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후 세금에 대해 90일 간의 유예 기간을 발표하였으며, 7월까지의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국에 10%의 일반 세율만 남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세율이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질문을 받은 콘셉시온 회장은, 지난 2주 동안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할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회는 오늘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지금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스마트하게 일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민간 부문과 함께 이러한 기회를 찾아야 하며, 그런 다음 그 기회에 집중하고 추구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을 목적지로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널리 알리고 마케팅하며, 여기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할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장기적으로 필리핀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무역 협정만으로 들어오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무역 협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리핀의 인프라, 물류, 하위 산업 및 노동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테네오 대학교의 루이스 F. 둠라우 교수는 필리핀은 미국에 두 경제가 상호 보완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자제품에서 적자가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수출하는 것은 미국이 최종 사용자 제품으로 완성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전 세계로, 필리핀을 포함한 나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역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앉아야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둠라우 교수는 필리핀과 미국 간에 자유무역 협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절대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최선의 방법에 의존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앉아서 가능한 한 자유무역에 가까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자유무역이 가능하다는 순진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필리핀의 ASEAN 내 두 번째로 낮은 세율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모든 제조를 집중하는 대신 다양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모든 기회를 얻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기회의 일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4/21/667071/tariff-pause-seen-as-window-to-attract-relocating-manufacturers/>

UPCOMING EVENT

ORGANISED BY



2025 JFC CLARK INTERNATIONAL MIXER

JFC Members: Php 2,500 • Non-Members: Php 2,800

Wednesday, 14 May 2025

6:00 PM - 9:00 PM

Clark Marriott Hotel

5398 Manuel A Roxas Highway Zone, Clark Freeport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